기업보험 위주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야

최 영 식
〈안국화재해상보험(주)·상무이사〉

1. 전환기를 맞고 있는 손보 산업

우리나라 손해보험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개방과 자율의 조류 속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고 있다.

1983년 실시된 정부의 자동차보험 다원화 조치는 과거 수십년 동안 특정사가 專業해 오던 자동차 보험시장의 독점체계를 붕괴시켜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시대를 열게 하였으며 그밖에 재보험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자유화예고와 수출 하물에 대한 範圍料率制度 도입, pool물건의 점진적 해체, 외국사에 대한 국내시장개방 등은 우리나라 손해보험 환경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격히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손해보험 중 화재보험을 중심으로 하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의 모습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화재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화재보험시장의 현황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화재보험료의 규모가 손해보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75년에는 총 거수보험료의 18.2%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85년에 와서는 9.4%로 줄어 손해보험의 최대 이익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화재보험의 물건별 구성비를 보면 대중성 보험의 주종을 이루는 주택물건 및 일반물건의 보험료가 극히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공장물건 등 기업물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높아서 화재보험 전체의 안정성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표2참조). 이는 우리나라 화재보험시장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물건에 집중되어 있고 가계 및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성 보험 시장은 커다란 잠재수요를 지닌 채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몇 건의 대형 이재에 의하여 화재보험 전체의 수지가 악화 될 소지가 크다 하겠다.

〈표1〉 9년간의 화재보험 실적 (단위 : 억원, %, 만건)

	거수보험료	성장율	손해율	점유비율	계약건수
1977	238	22	32	20.6	689
1978	297	25	23	17.2	637
1979	372	25	34.4	14.2	488
1980	485	30	32.5	12.4	424
1981	578	15	34.0	8.7	415
1982	662	15	17.4	8.9	435
1983	732	11	48.5	9.9	553
1984	850	16	33.8	9.9	1,034
1985	955	12	39.0	9.4	953

〈표2〉 한·일 화재보험 구조 비교 (백만$, 천건)

구분		단위	보통물건 주택	보통물건 일반(점포, 빌딩)	창고물건	공장물건	계
한국 ('84)	보험료 (구성비)	백만$ (%)	1.8 (1.8)	25.7 (25.0)	2.7 (2.6)	72.6 (70.6)	102.8 (100.0)
	건수 (구성비)	천건 (%)	230 (19.7)	99 (8.5)	793 (68.1)	43 (3.7)	1,165 (100.0)
	건당보험료	$	7.8	259.6	3.4	1,688.4	88.2
일본 ('84)	보험료 (구성비)	백만$ (%)	1,888.3 (76.0)		15.7 (0.6)	580.2 (23.4)	2,484.2 (100.0)
	건수 (구성비)	천건 (%)	37,505 (98.6)		77 (0.2)	463 (1.2)	38,045 (100.0)
	건당보험료	$	48.0		81.3	540.5	54.5

세째, 화재보험은 pool물건으로 상징되는 비경쟁 영역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여 왔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표3참조). 이에 따라 단위보험료가 작은 주택화재와 일반화재 물건에 대한 수요 발굴활동이 미흡했고 pool물건의 공동인수와 출재수수료에 의존하는 안이한 경영방식을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표3〉 화재보험 pool의 점유비율 (단위 : 억원)

연도	보험료	pool	점유비율	연도	보험료	pool	점유비율
1978	289	234	81	1982	645	413	64
1979	361	280	78	1983	732	395	54
1980	469	360	77	1984	850	359	42
1981	578	420	73	1985	955	379	40

네째, 언더라이팅 및 손해사정 기술이 미흡하고 국내 재보험 여건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 국내 보유의 극대화를 통한 해외수지 개선이 어렵게 되어 있고, 국내시장 개방에 대한 국제경쟁력 배양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섯번째는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요율로 이원화되어, 사용하는 약관에 따라 요율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3. 화재보험의 발전대책

(1) pool 물건의 점진적 해체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pool의 생성과 존속 기간을 고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각종 pool은 보험산업 초창기에 생성되었으며 pool 생성의 근본취지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보험산업이 거의 성숙 단계에 와 있고 더우기 외국 보험회사들의 국내 pool 동률참여라는 모순이 대두되어 있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 와서는 원자력보험 등 pool의 존속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것이 시장의 확대와 서비스 개선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국영문 약관 및 요율의 통일

주지하다시피 '6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투자업체 및 차관업체의 대폭 증가와 산업시설의 고도화에 따라 부보금액이 고액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보험가입자들이 영문증권의 사용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요율체계는 종전에 사용해오던 국문요율과 대형물건 및 차관업체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영문요율로 나누어지게 되고 동일 위험에 대하여 담보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사용하는 약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국문요율을 사용하는 것이 영문요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최고 2~3배까지 비싼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영문 약관 및 요율을 일원화시켜 나가야겠고, 부득이 영문요율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문요율 수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토록하고 국문증권도 영문증권에서 담보하는 특약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3) 대중보험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시장확대

한국과 일본의 화재보험 실적을 비교한 〈표2〉 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택 및 일반물건의 비중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비하여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재보험 계약이 공장 및 창고물건 등 기업을 위주로 체결되고 있고 주택 및 점포물건 등 단위당 보험료 규모가 작은 대중성 보험은 시장 개척활동이 부진함을 나타낸다. 이는 GNP에 대한 대중성 손해보험의 비중이 일본의 $\frac{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가구당 손해보험 보급도 면에서도 일본의 $\frac{1}{3}$에 그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그만큼 우리의 대중성 보험시장의 개척여지는 크다 하겠다.

따라서 향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것이고, 자동차 보급의 급속화로 손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전망이므로 각 손보사는 전업화된 판매조직의 육성과 소비자의 "니드" 에 맞는 다양한 상품공급, 對顧客 서비스 향상 등의 노력을 강구한다면 막대한 잠재시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규모공장 등의 화재보험 인수시에는 企業休止保險과 같이 필요성은 충분하나 계약자의 인식부족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부가 위험 담보를 첨가토록 권유하여 실수요에도 부응하고 거수보험료의 증대도 도모해 나가야겠다.

아울러 위험의 적절한 진단과 합리적인 분산을 기하여 재해예방과 건전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관리기법의 향상 및 언더라이팅 기술의 고양 등 보험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경쟁력 배양은 물론 보험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해외 出受再 역조 개선

화재보험의 재보험수지는 무모한 수재인수와 보유한도의 부족, 기업물건 위주의 계약인수로 인한 시장불균형 등으로 양질물건의 출재가 증가하여 출수재의 심한 역조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84년까지 화재보험의 평균 原受 損害率은 31.3%로서 국내보유손해율이 출재 손해율보다 우량하나 동 기간에 있어서의 해외 출재비율은 평균 33.3%로서 매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 개선책으로는 화재보험이 收支殘率이 높고 cash flow의 이점이 여타 보험에 비해 큰 점을 감안하여 보유의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담보력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고 해외 보험시장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겠다. 또한 재보험 거래기술을 향상해 나가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에서 재보험거래의 자율화가 강구되어야겠고, 현재 재보험관리규정에 묶여 있는 의무출재비율의 범위를 연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보험에 대한 인식의 개선

보험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과 경험을 불식시키고 보험의 유용성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회사간의 과당경쟁을 기약하고 모집조직의 전업화를 통한 불완전 판매를 배제하며 공정한 보상체계의 확립과 위험관리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험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주적 기업노력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 사회적 니드의 파악과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응력을 갖춰 보험사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험관리 및 홍보활동을 통한 재해예방과 對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친절운동을 범업계적으로 실천하며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기해 나가는 것이 보험에 대한 이미지 개선의 첩경이 될 것이다.

(6) 감독정책의 전환

보험산업의 초기 단계에는 통제 및 규제 위주의 감독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온 것도 사실이다. 즉, 강력한 관주도의 보험정책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며 보험 사업자의 부실을 막아 건전한 보험산업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험정책은 자율과 개방으로 표현되는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외형 위주의 성장보다는 경영내실화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갈 필요성을 업계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자율과 개방에 대한 자생력을 길러 나가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4. 맺는말

기업도 사회 체계의 일부분인 까닭에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흥망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우리의 손해보험 발전의 역사는 바로 화재보험 발전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과거의 화재보험은 특수물건의 강제가입과 pooling system에 의한 공동배분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손보사는 위와 같은 안이한 여건 속에서 별다른 노력없이 고성장, 고수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보험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화재보험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 위주의 무모한 경쟁에서 탈피하여 내실 위주로의 경영체질로 전환케 하고 계약자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케 하여 외국사의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보험정책도 점진적인 경쟁체제의 유도와 창의와 자율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탄력성있게 수정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위험관리기법의 실용화를 추진하여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해외 출수재 역조 개선을 위한 일련의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적정요율을 확보할 수 있는 요율검증 역시 철저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한 통계제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중보험의 확산과 각 물건간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보험 위주의 경영방식에서 탈피, 대중화 시대에 맞는 수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케팅기능을 확립하고 소비자 지향적인 상품개발과 신속 공정한 보상체계의 수립 및 다양한 홍보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